

문화예술 인큐베이터센터 추진

순창군, (구)보건의료원에 20억 투자 2018년까지 구축... 문화재단서 운영

순창군이 군민 문화생활의 중심지가 될 '지역문화예술 인큐베이터센터'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역문화예술 인큐베이터센터 조성사업은 지역의 역량 있는 문화예술인과 주민에게 안정적인 창작 공간과 환경을 제공해 군민들의 문화예술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고 성장토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군은 (구)보건의료원을 활용해 강의실은 물론 동아리방, 공연장, 전시실을 구축해 지역 문화예술의 중심지로 활용할 계획이다. 운영은 지역문화재단 설립을 통해 군민주도형으로 운영해 군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문화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2018년까지 사업을 진행하며 2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지역문화예술 인큐베이터 센터 조성사업은 군이 올해를 문화융성 원년으로 삼고 다양한 문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구상된 사업으로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기존 구축한 문화 인프라와 시너지 효과가 발생해 지역문화융성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실제 군은 지난해 작은 영화관과 청소년문화센터를 완공해 군민들의 여가활동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또 작은 미술관 2개소를 완공해 운영을 앞두고 있는 등 지역의 문화 향유기회가 대폭 향상됐다.

군은 앞으로 군민들이 모두 함께 참여하는 미술관 운영을 계획하고 있으며 섬진강 전국 사생대회 개최 등 전국적 문화예술 행사도 준비 중이다.

특히 군은 이 사업이 현 정부의 핵심정책인 '문화융성 기회 확충 11개 핵심과제와 관련이 깊은 만큼 국가예산 확보에도 큰 기대를 걸고 있다.

황숙주 군수는 "최근 우리 군의 문화예술 향유 인프라가 대폭 확대되고 있다"며 "이번에 추진하는 지역문화예술 인큐베이터센터 조성사업은 지역의 역량 있는 문화예술인은 물론 군민 모두가 참여해 자신의 문화예술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요망이 될 수 있는 핵심사업인 만큼 꼭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순창=구인규 기자



가족과 함께 장 담갔어요

순창군, 장독대 분양행사 실시... 도시민 60여명 참여

순창군이 지난 5일 도시민 6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전통기능인과 함께 장을 담는 장독대 분양행사를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이번에 진행된 장독대 분양행사는 도시민이 전통 장 기능인들과 함께 직접 고추장 된장, 간장 등을 담는 체험행사를 진행하고, 담근 장은 잘 숙성시켜 각 가정에서 배달해 주는 행사다.

이번 행사에는 서울 경기지역에서 50여명 등 도시민들이 많이 참여했으며 기능인과 함께 전통 장 담기 행사 이외에도 고추장 피자 만들기, 인절미, 튀밥 만들기 등 순창의 발효문화를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행사로 진행됐다.

군은 할머니, 어머니, 며느리가 함께 장을 담는 풍경이 사라져 가는 현실에서 이번 행사가 아이들과 함께 전통 장을 담으며 가족에 대한 의미도 생각하는 시간이 됐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한영삼(대구)씨는 "전통 장 문화에 대해 배울 기회가 점점 사라져 가고 있어 아쉬웠다"며 "전통장의 본고장인 순창에서 기능인들과 함께 전통 장도 담고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어 좋았고 특히 아이들과 함께 같이 부대끼며 가족의 정을 느낄 수 있어 기뻐했다"고 참여 소감을 밝혔다.

군은 앞으로도 서울 7개 학교와 함께 전통 장 문화학교를 운영하는 등 전통 장에 대해 국민들이 더 배우고 느낄 수 있는 것은 물론 발효의 본고장 순창을 알리는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순창=구인규 기자

과 함께 전통 장을 담으며 가족에 대한 의미도 생각하는 시간이 됐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한영삼(대구)씨는 "전통 장 문화에 대해 배울 기회가 점점 사라져 가고 있어 아쉬웠다"며 "전통장의 본고장인 순창에서 기능인들과 함께 전통 장도 담고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어 좋았고 특히 아이들과 함께 같이 부대끼며 가족의 정을 느낄 수 있어 기뻐했다"고 참여 소감을 밝혔다.

군은 앞으로도 서울 7개 학교와 함께 전통 장 문화학교를 운영하는 등 전통 장에 대해 국민들이 더 배우고 느낄 수 있는 것은 물론 발효의 본고장 순창을 알리는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순창=구인규 기자

남원 '관광택시' 5월부터 운행 예정

4월27일까지 운전자 10명 양성교육... 시 홈페이지 '여행플래너' 예약 통해 연결

남원시가 관광명소와 맛집을 안내해 주는 맞춤형 '관광택시'를 도입한다.

시는 지역의 관광자원체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관광택시 운영을 추진할 예정으로 찾아가는 친절 서비스 교육, 남원명소 알아보기, 남원의 문화적 특성, 지리산 이야기 등 전문교육과 일정 소요교육을 이수한 택시운전자를 대상으로 5월부터 관광택시를 운영할 예정이다.

관광택시는 영업원칙이나 가격 등에 있어서 기존의 일반택시와 크게 다른 점은 없으나, 코스별 이동은 정해진

요금제로 운행 예정이며 남원시 홈페이지를 통해 남원관광을 희망하는 개별 여행객들의 신청이 있을 경우 구간 이동 중 간단한 관광지 설명이 가능한 택시운전자와 사전 예약을 통해 연결된다. 이를 위해 남원시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남원시 여행플래너 라는 창을 만들어 희망 관광객들의 여행목표, 행선지, 만나고 싶은 사람 등 개별적인 요구사항을 미리 파악하여 택시와 관광객을 연계하고 택시 운전자들이 사진촬영 등 간단한 고객 서비스도 병행토록 할 계획이다.

이에 시는 7일부터 4월27일까지 주2회 운영되는 남원 관광택시 운전자 양성교육을 어한동 남원관광협의회 교육장에서 운영되며 10명의 지원자를 대상으로 출발하는데 총 15강 30시간의 프로그램으로 진행한다.

남원시 문화관광과장은 "이번 교육 수료생들에게는 관광안내원 자격을 수여하고 관광안내를 비롯한 각종 관광시설 안내 등의 각종 서비스를 제공해 깨끗하고 친절한 남원 관광이미지를 심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고창 농어촌공공, 올해 농지은행사업 100억 투입

영농규모화 43억 · 경영회생지원 33억 등

한국농어촌공사 고창지사는 2016년 100억원의 농지은행 사업비를 확보해 고창군 내 농업인의 경쟁력 강화와 과다채무로 경영 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경영회생지원을 위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지은행사업은 쌀전업농 및 2000세대 영농규모확대를 위한 영농규모화사업과 자연재해 및 과다한 부채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를 구제하기 위

한 경영회생지원사업, 농어촌공사가 은퇴농으로부터 농지를 매입해 쌀전업농에게 장기임대하는 농지매입비축사업 고령농업인의 영농은퇴를 촉진하고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과 농지연금사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인 2016년도 사업비 확보내용은 영농규모화사업 43억원, 경영회생지원사업에 33억원, 농지매입비축사업

7억원,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 16억원, 농지연금사업 1억원이다.

김상순 지사장은 "고창지사는 농지은행사업을 전사적으로 적극 추진하여 농업인의 행복시대를 열어 가는데 최선을 다한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농업인 등은 한국농어촌공사 고창지사를 방문하거나 문의(063-660-1509~1511)하면 자세한 상담과 현지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지원을 받게 된다.

/고창=김영식 기자

남원시, 수도권 귀농귀촌학교 운영

희망자 30명 대상 강의 · 탐방

남원시가 수도권에 거주하는 예비 귀농귀촌 희망자 30명 대상으로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2박3일간 수도권 귀농귀촌학교를 운영했다.

귀농귀촌학교는 남원시 귀농귀촌 정책설명과 이해경 남원귀농귀촌학교장의 나의 귀농귀촌계획서 강의와 함께 선도농가 탐방, 문화체험 등 현장탐방을 병행한 실질적인 교육으로 진행했다.

지리산저녁에 파프리카를 재배하여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 농가탐방으로 시작하여 고설 딸기재배 현장 등을 탐방하여 선배 귀농인들의 귀농시절을 들여보고 농촌생활과 문화를 이해하는 기회를 가졌다.

또한 남원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농가를 현장 방문하여 귀

농 선배로부터 소규모농가 조성부터 입주과정의 생생한 경험담 설명으로 예비 귀농귀촌인들의 주거문제 해결 과정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선배 귀농인과 1:1대화 시간은 귀농초기 겪는 영농문제, 주민과 관계 형성 등의 경험담 소통과 남원 문화 체험으로 교육생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았다.

교육생들은 남원의 귀농귀촌 정보와 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체 밴드를 구성하여 모임체를 구성하였으며, 교육생 30명 중 20여명은 남원에 정착을 희망하고 있는 등 귀농귀촌인 유치에 효과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시는 올해 수도권 귀농귀촌학교운영을 필두로 18개 과정의 교육을 실시해 적극적인 도시민 유치와 안정적 정착을 하도록 교육운영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남원=유영철 기자

고창군, 야생동물 피해 보상

고창군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나선다

군은 그동안 야생동물 보호정책으로 개체가 늘어난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피해가 매년 발생하고 농작물과 시설물 인명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농가의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피해보상을 실시한다고 7일 전했다.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등 피해가 발생한 농가는 읍·면사무소에 피해발생 5일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경작농가당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으며, 군은 산성된 피해액의 80% 이내에서 농작물의 생육단계와 다른 작물의 대체여부 등에 따라 보상금을 차등지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겨울철 먹이부족 등으로 멧돼지가 인가나 등산로 등에 출현할 가능성이 높으니 멧돼지와 마주칠 경우 갑자기 움직이거나 소리쳐 멧돼지를 자극하지 말고 멧돼지의 눈을 바라보면서 바위 등에 숨거나 높은 곳으로 안전하게 대피할 것을 당부했다./고창=김영식 기자



임실군, 가로 경관조성 · 관리 추진

임실군은 아름답고 쾌적한 지역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14억9000여만원을 투입해 '경관조성 및 관리사업' 추진에 발 벗고 나섰다.

군은 올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감성리 일원에 소공원을 조성, 도시숲을 활성화하고 강진, 운안면 등 주요 도로변 가로수 사업지를 선정해 설계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임실~관촌을 오가는 국도 17호 선변 은행나무 228주를 대상으로 수형조절 등 적극적인 관리를 통해 재해 및 영농피해 예방에 나서며, 임실읍 주요 도로에 편지, 페츨나야 등 5만7000여본의 봄철 계절꽃 식재를 시작으로 치즈마을 방영천 일원에 철쭉류 6,700여본을 식재하는 '신책로 주변 경관조성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민의 정주여건 및 삶의 질을 높이고 관광객이 다시 찾고 싶은 임실 이미지 제고와 더불어 기존 관광자원과 연계해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군은 가로수, 화단 등의 수목 및 시설물의 당골제거나 잡초제거 등 단순 작업은 읍·면에서 실시하고 가지치기, 지장목 정리, 전정작업 등 기술적인 작업은 균형 산림과에서 추진하는 이원관리제를 통해 예산 절약과 효율적 관리에 노력하고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보건소, 해빙기 방역소독

남원시보건소는 해빙기를 맞아 각종 위생 해충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최근 중남미에서 유행하고 있는 지카바이러스 감염병에 대비해 위생 해충 구제를 위한 해빙기 방역소독을 실시한다.

모기 유충이 서식하기 좋은 지하주차장 정화조, 하수구 등 발생 우려가 있는 장소를 대상으로 3월부터 5월까지 집중적으로 실시해 여름철 모기 등 감염병 발생원을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지구 온난화 등에 따른 기온 상승과 주거 환경 변화로 모기 등 위생 해충이 정화조, 지하주차장 등에서 겨울을 나고 있어 요즘이 각종 위생 해충의 저항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로 추위를 피해 활동하는 기간을 해충 구제의 최적기로 판단, 아파트 및 주택 밀집지역의 지하주차장 정화조, 하수구 등 229개소 취약지역에 대해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해충구제 방역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여 감염병 매개체의 근원이 되는 위생 해충을 사전에 박멸함으로써 각종 감염병을 사전에 예방할 예정이다.

관계자는 이번 방역소독은 친환경 유충구제 약제를 살포 방역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원=유영철 기자

제이앤제이그래픽

J&J

GRAPHIC

간판, 현수막, 표찰, 현황판, 실사출력전문,
안전용품, 가구, 커튼, 차량랩핑

Tel. 063-633-1201

Fax. 063-633-1203

e-mail . 6331201@hanmail.net